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예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니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새서 3:2)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3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다 자세히 보는 2003년도 제2차 정기기쁜날 메시지(1)

바울의 회심(행 9:1-22)

그리스도인들의 비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딤후 3:12).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핍박을 받으셨으며,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역시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마 5:10). 이런 핍박은 초대 교회에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있으며, 이 세상 끝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핍박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거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크게 벗어난 사람입니다(행전 2:23, 행 8:32). 예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핍박과 고난을 순한 양치령 감람이 받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핍박과 고난 아래에서도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따를 수 있는 것일까요? 사울의 회심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비결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늘라온 맞대결

본래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하던 파리새나 나사는 핍박자였습니다(행 8:3, 9:1-2). 그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무시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 믿고 증거하는 망령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의 분노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한 핍박자 후대자 식을 줄을 몰라 다대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같이 예루살렘으로 압송해 오기 전까지 마음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의 인장이 찍힌 공문서를 가지고 살기 두려웠던 모습으로 서둘러 다대배로 갔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은 핍박자 사울이 다대배의 문턱까지 오기를 기다리셨다가 햇빛보다 더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비추시었습니다(사 24, 행 9:3). "땅에 엎드려서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행 9:4).

열심히 전부는 아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율법과 자기 의, 전통과 규례로 토틀 문져 있는 기교만장한 위선자 사울의 심혈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날선 결과도 같았습니다(행 9:5 : 22:10). 그렇습니다. 사울은 단순한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잔인한 핍박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하울 좋은 명분과 종교적 열심을 내세우면서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대적하는 무지막한 죄인 위선자! 포악한 핍박자! 이것이 사울의 실제 모습이었었던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인간의 모든 종교적 열심이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스도를 무시한 채 교회를 섬기고 민족과 사회를 사랑하며 도덕과 윤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복음화도 결국 사울처럼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질문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된 사울은 예수님을 '주'(바)라고 부르며 예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그런 주님께 더욱더 예리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깊이 알리셨습니다(행 9:5, 마 12:2). 결국 사울은 주께 알이 항복하여 정직한 회개하며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행 22:10a)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질문은 메마르거나 형식적인 질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문이 없는 이전의 악행을 항해하며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려는 회개하는 죄인의 눈물 섞인 절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등한 질문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함입니다. 오호라 주님을 팔기하던 우리의 악행을 회개하며, 주님을 위해 살려는 새 마음을 가지고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물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 주님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주시며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름 자가 있느니라"(행 22:10b).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기도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대배로 들어간 사울은 양심의 가책과 영혼의 격동과 죄의 고뇌로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서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행 9:8-11). 마치 이전에와는 전혀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그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신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하게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결코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 있는 기도는 한 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청지기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를 향한 이런 진실한 기도가 있습니까? 혹시 이 세상의 축복을 구하는 데만 급급한 사람은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기도가 있는 후에야 비로소 청지기로서의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라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 관해 처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사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울이 주님을 위해서 장차 받아야 할 고난을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행 9:15, 16).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매일 천지 대하야 할 것은 축복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과 밀림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보고서는 우리의 받은 고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제 2:10). 청천과 영광은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한 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청지기 여러분, 주님을 위해 참시 받는 고난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받는 고난을 싫어해서 사하여져 천지 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서라도

주님은 사울의 갈 길을 보여주신 후에 사울의 육적인 눈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행 9:17, 18). 이제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한 사울은 사울 동안 끊었던 음식을 다시 먹기 시작하셨습니다(행 9:19). 이런 사울에 비할 때, 오늘날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으면서 그저 맛있는 음식으로 자신의 배만 채우려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죄를 용서받지 않은 사람이 신해진 몸을 배불리 먹는다 한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떨어져 있다면, 사울처럼 식음을 전폐하고서라도 주님께 매달리는 열심이 우리 청지기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은 다대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 자신의 이전 악행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으며, 다대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즉시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은 흠뻑한 회개였으나 예수님의 무식한 제자들과 한때 머침을 보더라도 조종해 배운 것은 흔적을 보였습니다. 사울은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항복했을 뿐만 아니라 행태들 앞에서도 온전히 항복하며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를 위하여 살던 삶에서 돌이켜 진심으로 주님의 영광 앞에서 쓰러지며 항복하는 삶, 또한 다는 그리스도인들 앞에서도 우리 자신을 헌양이 낫는 삶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선행 청지기 이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능력 있는 증거의 비결

뿐만 아니라, 회심한 직후부터 사울은 예수께서 하나님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행 9:20, 21).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의 영애에서부터 나갔기 때문에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심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천사의 말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말은 울리는 행과리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들의 심령에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 있고 능력 있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청지기로서 우리의 복음 증거와 선교가 능력 있으며, 사울이 다대배 도상에서 겪은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온 믿회 도사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기대감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소낙비처럼 내리야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삶에 이런 은혜가 있도록 간구합니다.

고난에 뒤따르는 위로

사울의 이런 변화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사울과 손을 잡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대제사장들은 사울의 변화에 크게 충격을 받고 분개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명하여 다대배에 있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습니다(22:23). 그렇습니다. 반대한 자들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곁에 계시며 계시며 그들한테 붙잡아들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 곁에도 계시며 우리들에도 붙들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인하여 사람들이 무서워 무기를 당하고 다대배로 배척을 당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호라 그 때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고난은 오호라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청지기 삶의 원동력

지금까지 우리는 사울의 회심을 살펴보았고, 그의 회심 그 후로 금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해 한 원동력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울처럼 그리스도와의 참된 만남을 통하여 아직도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기대감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항복하는 이 변화입니다(딤후전 1:16). 참 감사하게도, 잔인한 핍박자 사울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를 부르며 계십니다(마 11:28). 동행한 은혜와 고침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와 이름을 위하여 살았던 삶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도록 합시다. 사울처럼 식음을 전폐하고 "주여, 뉘시오이까?"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물음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님 앞에서 울며 은혜를 구하도록 합시다. 아멘!

Sermon for next week

A LITTLE BEYOND

“And He went a little beyond [them,] and fell on His face and prayed, saying, “My Father, if it is possible, let this cup pass from Me; yet not as I will, but as Thou wilt.”』
(Matthew 26:39)

After instituting the Lord's Supper, Jesus walked a little beyond with His disciples to 'a place called Gethsemane' (v. 36). The name Gethsemane means 'oil press'. It was a garden, doubtless containing olive trees, located on the side of the Mount of Olives. Once there, He asked His disciples to sit, and He walked a little beyond with Peter, John, and James. As He drew nearer to the cross, His heart became tremendously 'grieved and distressed' (v. 37). His suffering intensified. He told His three closest disciples, "My soul is deeply grieved, to the point of death; remain here and keep watch with Me" (v. 38). The agony of Jesus' heart wrenching sadness is beyond measure. Yet, "He went a little beyond them, and fell on His face and prayed, saying, 'My Father, if it is possible, let this cup pass from Me; yet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 (v. 39). Here we view the painful passion of the Son of God in the midst of the Garden of Gethsemane alone, and in spite of everything, He still went a little beyond. His disciples told Him that even if they had to die with Him, they would not deny Him (v. 35). Yet as soon as Jesus was arrested, "all the disciples forsook Him and fled" (Mt. 26:45). Jesus went a little beyond alone.

The sadness and suffering Jesus experienced during His first coming was immense. His whole life in a fallen world involved suffering. He left the most gracious, beautiful, heavenly kingdom to come to this earth. He left the bosom of His lovely Father, and the glory of heaven behind Him, so that He could be placed in the Virgin Mary's womb. Our Almighty Lord humbled Himself to be born at Bethlehem in a lowly manger. As an infant, He escaped the terror of King Herod. He grew up in the meager town of Nazareth with poor parents, and learned obedience through what He suffered (Heb. 5:8). He withstood tremendous pain during the temptation in the wilderness. His ministry, which began in the little city of Capernaum, was limited to the surrounding areas of the Sea of Galilee. Everywhere He went, the people of this world, most especially the famous religious leaders, discriminated against Him. Nevertheless, He alone proclaimed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He was a lonely prophet with no home of His own. Try to imagine the Creator of this world coming down to His creation as a poor, homeless, and lonely traveler. Try to imagine the intense feelings of His rejection.

In the garden of Gethsemane, Jesus moved just a little beyond in suffering. In this sinful, violent, and dark world, His heart deeply sorrowed to the point of death; He continued to

walk just a little beyond. That was His life's walk. My dear friend, just look at Him with faith. Lying face down in the garden, distraught with grief, He overcame His physical needs. He was a champion! He was alone, and His body was tired. His spiritual strength was worn. He cried out to His Father. He had only one thing left, to pray to His Father. He prayed aloud, "if it is possible, let this cup pass from Me; yet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 (v. 39). Here is success.

From the garden of Gethsemane, Jesus stepped a little beyond to a place called 'Gabbatha', which means rock (Jn. 19:13). Here the world's Roman power under the control of Pontius Pilate's judgment happened. Pilate yelled to the crowd, "Behold, your king" (Jn. 19:14). Indeed, Jesus overcoming the world made Him our King, but the crowd looked upon him with contempt. They preferred the release of a murderer instead of the discharge of an innocent man. They denounced His kingship, and acclaimed another. In spite of this, Jesus rose above the world's way, and endured the injustice for the sake of God's will. Here is triumph.

From Gabbatha, Jesus walked a little beyond to a place called 'Golgotha', which means skull (Jn. 19:17). Here they crucified Him. The physical pain of crucifixion and the pain of taking on Himself the absolute evil of our sins were aggravated by the fact that Jesus faced this pain alone. Far worse than the desertion of His closest friends was the fact that He was deprived of the closeness of His Father, which had been the deepest joy of His heart for all His earthly life. He faced the weight of the guilt of all sins alone. Yet, here He won the battle with Satan. Here is victory!

Jesus moved a little beyond again as He came to the grave. Here He overcame the power of death (Mt. 28:6). His resurrection was not simply a coming back from the dead, as had been experienced by others before, such as Lazarus. Rather, when He rose from the dead Jesus was the 'first fruits' (1 Cor. 15:20) of a new kind of human life, a life in which His body was made perfect, no longer subject to weakness, aging, or death, but able to live eternally. Here is glory!

Jesus always went a little beyond. That was His way. He went a little beyond to overcome the physical and earthly. He went a little beyond to overcome Satan and death. Even though He suffered greatly, He continually moved a little beyond to resurrection glory. Let us praise and worship Him with all our hearts. Let us glorify Him by going a little beyond in our walk in faith. ■

다들 주일설교

조금
나아가사

김성판 목사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 26:39)

극한 고통 속에서 내딛은 걸음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주님은 “겻세마네라 하는 곳”(36절)으로 가셨고 제자들보다 조금 더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겻세마네”라는 이름은 “기름짜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겻세마네는 갈릴산 옆에 위치한 동산이었기 때문에 기름없이 갈릴산무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앉아 있오라 명하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님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고민과 슬픔에 잠기셨습니다(37절 참고). 예수님의 고통은 더 극심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심경을 털어 놓으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38절). 슬픔을 자아내는 예수님의 심적 고통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에 굴복하지 않았고,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39절 참고).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겻세마네 동산 한 복판에서 홀로 힘든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조금씩 더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35절).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모두 달아나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마 26:56). 오직 예수님만 홀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슬픔의 사람이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시면서 겪으셨던 고통과 슬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생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아름답고 은혜로운 천국을 떠나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셨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될 수 있었습니다. 진솔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메델레헨 마굿간의 초라한 구유에 나셨습니다. 갓 태어나셨을 적에는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 도망치셔야 했습니다. 또한 나사렛이라는 가난한 마을에서 가난한 부모 슬하에서 자라셨으며,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히 5:8). 구약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동안에는 참으로 지독한 고통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시작된 그의 공생애는 갈릴리 바다 주변 지역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특별히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하나 없는 외로운 선지자였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가난하고 외로움 거쳐 없는 나그네로 자신의 피조물에게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았을 때 예수님이 느꼈을 감정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겻세마네에서도 조금 더 앞으로

겻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고통 속에 계셨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앞으로 걸어나가셨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깊은 슬픔을 느끼셨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38절b)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어려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슬픔에 사로잡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육체

적인 피로를 이기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셨습니다! 철저히 혼자이셨던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매우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영적인 힘마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를 향하여 부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오직 한 가지 일만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큰 목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39절). 바로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가바다’로 나아가신 예수님

겻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신 예수님은 ‘가바다’(요 19:13)라고 불리는 곳으로 조금 더 나아가셨습니다. 히브리 말로 ‘가바다’는 ‘단단한 바위’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본디 빌라도가 주재하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빌라도는 군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요 19:14b).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죄없는 예수님의 방면보다는 살인자의 석방을 더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부인했으며 자기들의 왕을 따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방식대로 그들을 저주하거나 되갚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불의를 참으셨습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골고다’를 향하여 나아가심

‘가바다’에서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은 ‘골고다’라고 불리는 곳으로 조금 더 나아가셨습니다. 히브리 말로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요 19:17). 여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에 따른 육체적인 고통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질여져야 하는 영적인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고통만으로도 힘드셨지만 이러한 고통을 홀로 질여지고 가야한다는 사실 때문에 더더욱 힘드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는 사실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시신 동안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큰 기쁨을 주었던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가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책의 무거움을 철저히 혼자 질여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예수님은 사탄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덤 속으로도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사방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마 28:6).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전에 나타났던 부활처럼 단순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의 첫 열매(고전 15:20)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완전해지심으로 더 이상 질병이나 노화나 죽음의 권세에 놓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도 조금 더 앞으로

예수님은 언제나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육체와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예수님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사탄과 사망을 이기기 위하여 예수님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셨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합시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예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

스리랑카를 다녀와서

김 유 자 (재사, 6교구)

먼저 이 죄인을 보내는 선교사에서 참여하는 선교사로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CMTC 교육을 받으며 기도하는 중에 5교구에서 후원을 받았고 기쁜 맘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훈련을 받으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다 교구에 속해 약간의 서막함과 두려움도 잠깐 있었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자매임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로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무장하였고 언어훈련과 기도회를 통해서 마음을 모았습니다. 또 함께 의논하고 계획하며 점점 사랑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약한 육체는 힘들고 지쳐갔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영은 맑아졌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느끼게 해 주시고 또 느슨해진 제 신앙을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슬림과 불교도들이 탄압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있었지만 많은 교역자님들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땀처럼 지혜롭게 비들기처럼 순결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사도바울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해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2b,13)라고 고백한 것과 같은 고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역을 나가기 전 팀장님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시켰고 사역을 나가서는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사용하셨습니다. 우주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교만했던 제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았습니다. 죄인을 도구로 사용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낮아지고 깨어지고 녹아져서 정말 주 안에 다 내리놓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때로는 전진하게 하고요 때로는 물에 놓으셨으며 때로는 반성하게 하고요 때로는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게릴라식 전도로 많은 준비된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친히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스리랑카 땅에 복음이 널리 퍼지고 퍼지길 기도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바울에서 나의 발길이 머문 곳에, 나의 눈길이 머문 곳에, 내가 복음을 전한 곳에 그리고 내 마음이 남은 그 곳곳에 주의 나라가 확고되고 주의 영광만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심자가

김 제 현 (고동부)

나에게 있어 심자가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받은 죄를 씻어주기 위해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다는 성경의 이야기가 한 부분일 뿐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내가 아는 심자가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봤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심자가는 참으로 놀라웠다.

위에서 말했듯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나에게 내려와 나는 나 스스로는 그 죄를 어쩔수 없는 죄인이 되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았다. 그런데 놀라운 심자가 복음을 듣게 되어 구원을 얻었다. 먼저 복음을 들었으니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세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심자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학교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보면 예수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못 물어본 친구들이 많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벌거벗은 몸으로 말 못할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심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다. 하지만 난 아직도 친구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는 것을 어렵게 느낀다. 나의 자랑은 오직 복음뿐이어야 할 텐데 마땅히 자랑해야 할 복음을 자랑하지 못함을 회개한다. 또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우리는 심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다들 반칙을 하고 앞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노방전도를 나가서 전도지 한장 받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는 것 같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오실 때 영원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 이번주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11월 3일(월)~11월 12일(수)	G	15교구 1지역	최호일
11월 4일(화)~11월 15일(토)	G	11교구 5지역	박호용
11월 6일(목)~11월 14일(금)	D	1교구 4지역	이부성

*선교 위원회 방침으로 인하여 국기병은 많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선교일지 (5)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선교일지에는 그의 삶과 앞에 연재한 내용과 같이, 인디언을 대상으로 한 선교에서 어떻게, 무엇을 전했는지가 잘 쓰여있다. 그의 선교일지에는 그도 우리와 같이 부서지기가 쉬운 육체를 가진 인간이었으며,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앞에서 우울과 절망에 빠져들곤 하던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앞에서 달려갈 선한 싸움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는 선교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을 통해 일하게 하는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했기 때문이다. 분명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며, 선한 일이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과의 접촉이 끊길 때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인간의 경영을 도모하게 된다. 그래서 브레이너드는 기도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았으며, 오직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만을 전했던 것이다.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오류는 우리의 열심을 낸다는 것이다. 즉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격'이나 '의' 혹은 '명예'를 내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이용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런 불경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매일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일하기에 우리가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알아서 하신다는 관점으로 믿동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일하는 자들의 모습을 '논물로 씨를 뿌리는 자'(시 126:5)라고 표현한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여지껏 천천히 걸어오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 '달려갔다'고 말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일하시니 본인도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요 5:17).

선교는 분명 주님의 일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신다. 그렇기에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가 그 선교를 하면서 어떤 일을 겪고, 얼마나 큰 일을 했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이며 그 모든 일을 중심에서 행한 신 주님만을 찬양하길 소망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시 127:1).

(원정식 기자)

2003 청지기 훈련을 받으며...

“바울의 회심”

이혜자 (권사, 12교구)

조종현 (교무부)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만 오, 저온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새날한 10월의 밤 공기를 가르며 천국찬치를 알리는 총현의 연합 성가대의 거
룩하고 아름다운 찬양이 온 동네로 퍼져 나갔다. 이렇게 후반기 청지기 훈련이
시작되었다.

살기동등한 권위를 갖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꺾박하던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특별히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계시는 햇빛보다 더 찬란한 영광
의 빛으로 비추었다. 주의 음성이 사울에게 들릴 새 사울이 대답한다. “주여 뒤
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꺾박하는 예수라” (행 9:5). 오! 사랑의 주님, 우
리의 구주되시며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 대속하사 십자가에 흘
린신 보배피를 생각할 때 밀려오는 은혜! 그 은혜의 이름 “메시아!” 예수님은 다
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주셨다. 자신을 꺾박했던 사울을.

사울 동안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한 사울! 주님께서 제자 아나니아로 하
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사울의 눈에서 비늘같은 것을 벗기시고 육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보게 하시어 바울을 당신의 마지막 사도로 택하시지 않았
단가. 이제 우리도 사울의 눈에 끼었던 비늘이 벗어질일이 온갖 세상으로 향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비늘을 벗어간다 한다. 우리의 눈
에 비늘이 벗기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아가는 것도 설금과 분
사와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것도 소용이 없으며, 무한하신 하나님을 나의 유한
속에 가두어 두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탄이요, 영의 생각
은 생명과 평안이라(롬 8:6).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
니라(롬 8:8). 이 시간, 믿는 자의 소망이 영원한 천국에 반드시 있을진대 나 자
신을 부인할 수 있는 주님의 택하신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해본다.

지난 여름, 딸이 갑상선 암이라는 말을 듣고 미국으로 날아갔다. 사람이 감당
못할 기대한 병. 죽음이란 이름 앞에서 천국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으니, 다메섹
에서의 사울도 는 번 행보도 이런 간절함이었을까? 오! 천국의 소망밖에 우리가
바랄 것이 무언가! 딸이 투병하는 동안 남을 떠났던 남편이 사울과 같은 고백
으로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딸의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오, 꼭 다메섹 도
상이 아닐지라도 저희를 만나주신 예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
신 것을 오늘도 그 때처럼 었드리 눈물겹도록 감사,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서 죽자!

10월 4일 청지기 훈련이 시작되는 날, 나는 갈까 말까 하는 생각에 무척
이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33일째 하는 생각도, ‘아니야 가고싶
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 생각들을 만드는
제일 큰 이유는 주의 사람들의 충고였습니다. 33일을 잊지 말라는 것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청지기 훈련을 가기로 결심했습니
다. 예전에 아파다는 핑계로 예배에 빠졌던 적이 많았는데 지금 들어코보
면 너무나 후회됩니다. 그래서 그 날이 지나가면 그날의 은혜는 영원히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주님이 좋아서 청지기 훈련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청지기 훈련에서 저는 깨어지는 것과 십자가에 완전히 죽는 것이 무엇인
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외적하던 사람이며 가식하던 사람인
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깨져 변화된 바울을 보고 부럽다는 생각도 들었고,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 것을 보고 많이 도전도 받아 “나
도 저럴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나는 고난을 피하기만
하고 시험을 부딪히지 않으려고 타협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살아 있어서 말씀을 듣지도 읽지도 않았으며 내가 하나님께 찬
송드리면서도 외적했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회개할 것들이고 주님
께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저 좀 죽여 주시고 저를 깨뜨려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이 완전히 드러나 내가 죽고 깨어진다 것이 얼
마나 좋은 일 일니까? 모든 허물, 습관들을 다 주님께 내려 놓고 고뇌 의지
하면서, 용서하시는 대로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면
얼마나 좋을지! 나는 지금 기쁨은 느껴지지 않으면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다 받아 주시잖아요. 정말 이렇게 막 떠들고 다니고 싶습니
다. 예수님이 진짜주요! 내 모든 것이 되는 분이시구요. 정말 모든 사람
들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 놓아야요,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
고 그 사랑을 모두가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십자가 앞에 죽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서 온전히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송

31장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이 찬송의 작시자는 헨리 프랜시스 라이트(Henry Frances Lyte, 1793-1847) 목사
의 가장 유명한 대표작이다. 그는 젊었을 때 가난 속에서 생경 천식과 폐병으로 고
생했으며 해변 교회에서 성직이 거친 어부들 틈에서 약 24년간 목회를 했는데 그 거
친 어부들은 라이트 목사의 사랑에 녹아 양광이 순례자 변한 라이트 목사를 무척
사랑했다. 그러던 그가 54세 때 건강이 한계에 도달해 병든 몸을 이끌고 낯선 곳으
로 떠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누구도 함께 갈 수 없는 그 쓸쓸한 길에서
그토록 무력한 자를 도우시는 주님께 정말 감사했다. “주님의 양들을 돌봐 주소서.
이 종이 가는 곳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 아무도 함께 가지 못하는 곳이오나 주
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 그 기도를 여덟 개의 절에
담아 엮어냈는데 한국 찬송가에는 네 개의 절만 실려 있다.

이 찬송가의 곡은 영국 교회 음악 발전에 기여한 윌리엄 헨리 몽크(W. H. Monk,
1823-1889)에 의하여 1861년에 작곡되었다.

1절: 나와 함께 하옵소서 환호인 속히 떨어지니 주여 아들이 임하여라

2절: 세월이 흐르는 순간 순간 주의 임재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로
무엇이 유혹자의 권세 깨리요? 주님처럼 누가 나의 인도자요, 지주가 되리이까?
슬로베냐 기쁨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4절: 주여, 나 는 길을 때 주의 십자가 높이 들어주시고 아들 속 비취사 하늘을 향해게 하옵소서.
하늘의 새 임을 듣고요 이 땅의 영원히 그림자 사라지리니 사나 죽으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이 찬송가 가사는 어떤 찬송가를 번역한 것으로 출판 성도들을 위하여 주의 은사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 찬송가와 대조하시면서 묵상하신 복음의 진리가 더욱더 드러날 것입니다.
(한양원위원장)

2003년도 제6차 성찬식

오늘 1부에서 5부 예배시에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롭게 새겨줌으로
써 우리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서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이다. 그러
므로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도 진실한 믿음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지만,
성찬식에 참여한 후에도 그에 못지않은 진실한 믿음과 헌신이 있어야 한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은혜를
더 깊이 확신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온 세상에 전하는 중인이 되
기를 바란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전 11:26).

세 · 가 · 족 · 을 · 함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290	장호민	1	교무부	김복하(1)	1297	임은숙	7	청년부	이연혜(12)	1304	김병진	19	대학부	이진규(6)
1291	김주식	2	소망부	이현숙(2)	1298	이정자	13	청년2부	이은숙(14)	1305	이정양	19	고등부	이은숙(19)
1292	김화경	2	사망부	이현숙(2)	1299	류정선	15	청년2부	노경희(15)	1306	장승주	19	고등부	이은숙(19)
1293	신정호	3	청년2부	남영민(3)	1300	박종현	17	청년2부	이은숙(17)	1307	홍서연	19	고등부	
1294	장영자	5	소망부	김지연(5)	1301	이재승	19	청년1부	장진선(19)	1308	홍아	19	외선부	김석영(7)
1295	김혜선	7	청년2부	이진규(6)	1302	서태현	19	청년1부		1309	관	19	외선부	김석영(7)
1296	신원구	7	청년2부	이진규(6)	1303	김남훈	19	대학부	권보람(5)	1310	하	19	외선부	김석영(7)

※ 총현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에바다부 설립 15주년 수확찬양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번 에바다부 설립 15주년 기념 수확찬양예배 중에 찬양을 하는데 지치지 않게 떨치지 않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에바다부 성도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어 정말 기뻐했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천원교회로 8년 넘게 다니고 있습니다. 에바다부에서 만나는 선생님들, 봉사하는 집사님과 권사님들, 전도사님, 장로님, 목사님 모두 좋은 분들이어서 마치 가족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 못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느낌이 들어서 심적으로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세상적인 일에 너무 집착하지말아야지' 하고 하나님께로 빨리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고 오랜만에 에바다부 성도들을 만났는데 다들 따뜻하게 대주셔서 다시 평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못된 마귀한테 끌려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에바다부에서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처럼 전에는 에바다부에 다녔지만 지금은 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것들에 묶이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 영은 (에바다부)

교사양성부 교육을 받으며

제67강 공과 교수 실제

우리가 가르칠 아이들은 정말 귀엽고 순수합니다. 이들은 죄와는 무관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겉모습의 순수함 때문에 인간 자체의 죄를 간파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죄로 물든 몸이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혼자 살 수 있다는 무지와 고요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 옮지 못한 모든 죄로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와 관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곧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원래의 정상적인 모습을 잃었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이 누웠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풍성함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자신들의 죄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율법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무엇인지, 또한 이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다시 원래의 풍성함을 되찾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실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인간의 철저한 연약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넘지 못했던 의를 육신의 몸으로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언약을 하나님께 지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할 공과는 아이들이 이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입니다.

(현대원 기자)

십자가

만져지지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하심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심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심.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심을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그러나 제 자신이 죄인 됨을 알게 해 주셨을 때

나의 죄, 그 더러운 몸의 깊이가 더해갈수록

심자가,

주님께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가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더러운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주님을 믿고 또 알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더하여 주심

더럽고 무지한 죄인,

주 앞에 감히 고백하옵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주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되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십자가가

제 믿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부리 (중동부 교사)

믿음의 학교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시 121장)

1969년 7월 20일, 네일 A. 암스트롱은 아폴로 11호 우주선을 타고 달에 처음 도착했습니다. 나흘 동안 약 384,400km를 여행한 것입니다. 그는 '고요의 바다'라는 달 표면에 도착한 후, 시편 121장을 낭송하였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나의 출임을 지극무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누가 여기서 그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여기 조그만 우주선 아폴로 11호일까요? 암스트롱의 시편 낭송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 분이 지금부터 영원히 자신을 지켜주시는 찬양이며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는, 세상에 많은 도움이 있었지만 인간이 얻을 도움은 하늘이나 땅, 그 어느 곳에서도 없고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고 고백합니다(2절). 순례의 길은 험한 길입니다. 산 넘고 물 건너가는 긴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발이 실족치 않길' 빌고 계십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채도 아닌, 바로 한 사람인 '나'입니다!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4절). 한 순간도 어김없이 성도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일일이 감찰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배려를 의인화하여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다른 신들과는 다릅니다. 계절마다 자고 깨는 신도 있으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늘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니..."(7절). 그들이 가는 순례의 길에서 겪을 어려움을 예상한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서도 두려워하거나 낙망치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눅 21:17-19).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는 자들을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임을 지극무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8절). '너의 출임'은 '너의 들어오는 것과 너의 나가는 것'입니다. 즉 한 인간의 모든 삶, 그의 일상 생활의 전부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의심과 염려를 버리는 말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는 어둡지만 여호와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말입니다. 이 노래는 앉아있는 자들의 노래가 아니라,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천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입니다.

(권함임 기자)

교회 소식

1. 정기당회

1. 정기대회
일시: 5월(수) 수오2부 예매 후
장소: 당치회
2. 관사 1지회 월례회
일시: 5월(수) 수오1부 예매 후
장소: 영아실부
3. 인우집사회 총회
일시: 오늘 15:30
장소: 교육관 301호
4. 경향 전도회 월례회
일시: 9월(주일) 15:30
장소: 본당 112호
5. 실업인 전도회 월례회 및 특강
일시: 4월(일) 19:00
장소: 교육관 304호
6. 호스피스 봉사단 월례회
일시: 4월(화) 14:30
장소: 제1교육관 501호

별 세

1. 조복덕 씨 윤석규 안수집사의 장모, 정진
너 권사의 모친, 9교구/ 10월 21일 별세, 10
월 23일 장례
2. 강대상 타교목사 강옥련·강옥·강길원
집사의 부친, 임형호 집사의 장인, 1교구

- 연주2구역/ 10월 21일 별세, 10월 23일 장례
 박범우 성도 박종진 집사의 부친, 김광재 집사의 사부, 17교구 장경자구역/ 10월 22일 별세, 10월 24일 장례
 정진선 은퇴 집사 박광식 안수집사의 모친, 장복동 권사의 시모, 9교구/ 10월 26일 별세, 10월 28일 장례
 최순분 씨 이현국 성도의 모친, 최옥연 집사의 시모, 5교구/ 10월 28일 별세, 10월 30일 장례
 김갑득 성도 강경주 안수집사의 장모, 박명란 집사의 모친, 11교구 사이온구역/ 10월 29일 별세, 10월 31일 장례

결혼

1. 유제나 군(유드미프리 씨, 유니나 씨의 아들, 외선부)과 박경애 양(박형철 씨, 노정자 씨의 딸)/ 4일(화) 15:00 갈릴리홀

주소 변경

1. 최지윤 장로, 백숙자 권사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7
빌딩 601호

◆ 음영실 자원 봉사자 모집

일 시 : 주일 및 수요일·금요일 예배

장 소 : 본당 및 음영실

자 격 :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봉사하실 분

(예배시간 전부터 준비해야 함)

초보자 가능(자체교육 후)

직원모집

- | | |
|-----------|--|
| 1. 모집부문 | 기도원 식당·기도원 관리인
인쇄실·경비직 |
| 2. 자격 | 세례교인 |
| 3. 제출 서류 | 자필 이력서·주민등록등본
당회장추천서(타교인) |
| 4. 서류 제출처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총천교회 사무국
☎ 552-8200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회보

이번주 새벽기도회 담당

	3(월)	4(화)	5(수)	6(목)	7(금)	8(토)	9(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정수/임무천	장 훈/강영철	임현덕/강경수	이희식/박종철	최종철/장철규	하종철/김경연	최종철/강덕필

예배 담당안내 (11/5~11/9)

날짜	예배	예배 전 찬양	사 회 기 도	설 교
11/5	수요 I		이종대	울음을 향하여 죽은 자(갈 2:19-21) 영원한 목사
11/5	수요 II		여국진	울음을 향하여 죽은 자(갈 2:19-21) 영원한 목사
11/7	금요집회	특별찬양 (소프라노 조수진/기요/바이올린 장연희)	장진호	부활의 노래
11/9	주일 I		안재홍	임무의 노래
11/9	주일 II	그 환호는 십자가의 바이올린 김유진(합창팀 아오케스트라 악장)	위건달	노래한
11/9	주일 III	제 장미꽃 위에 이슬의 미려(합창팀 아오케스트라)	이종대	결혼의 노래
11/9	주일 IV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바이올린 임지희(중창2부)	고광환	결혼의 노래
11/9	주일 V	감람탄 밤 사바온 불의 미라본(연결찬양 솔로리스트)	김정수	이제까지
11/9	주일잔잔악		김성호	그리스도의 능력(골 4:10-15) 여국진 목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 간	점 수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회, 외국국립도서관 제외)	본 당
	IV 오후 1:00(국립도서관 제외)	본 당
	V 오후 3:00 (캘리포니아 도서관 예)	본 당
전일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본 당
금요일회	오후 7:00	본 당
세례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처 럼
화요일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일	오후 10:30	금요일 오후 본당 앞 출발

구분	시간	장 소	구분
영아부	I 오전 9:00 II 오전 10:50	교육관 110호	청년 1부
유아부	I 오전 9:00 II 오전 10:50	교육관 210호	청년 1부
유치부	I 오전 9:00 II 오전 10:50	제2교육관 1층	청년 3부
유년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소명부
초동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신승기결부
소년부	오전 10:30	교육관 607호	사망부
중동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예배대부
중동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탁구부
중동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세척부
고동부	오전 9:30	제2교육관 3층	출생어린이집
대학부	토·일 오전 4:00	제2교육관 4층	전성경어린이교회
청년 1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3층	국립중앙도서관

구분	시간	참 소
청년 2부	오후 12:20	교육관 501호
청년 1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청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성인 2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 망 부	오후 12:15	강 렬 회의
성인 3부	오후 12:15	교육관 204, 205호
성 망 부	오후 11:00	복합관 3차 시청
예배마루	오전 900(수영)~오전 1000(성인)	교육관 207호
탁 아 부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 102호
세강마루	오전 9:30	강원리회, 리더스
출연/연회이점	주간 강연	교육관 107호
전신/전신교육	주간 강연	출연 비점
내국/전신교부	오전 11:00	이 면 출

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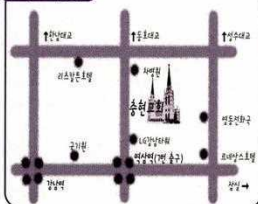
■ 사무장료

김의철 기대원	김은호 업필서 재교사(기대원)	노광현 당파기 장교(기대원)	오진국 해방기 장교(기대원)	이병환 해방기 장교(기대원)
정운서 교도장	김영길 봉사(기대원)	홍윤구 봉사(기대원)	조인환 봉사(기대원)	강우주 충청(기대원)
취부길 기대원	김진태 봉사(기대원)	이창호 봉사(기대원)	차관복 충청(기대원)	김광남 기대원
이훈석 기대원	이병욱 장교(기대원)	안종욱 재정비 장교(기대원)	임무천 충청(기대원)	최희봉 충청(기대원)
김재현 교도장	전종훈 충청(기대원)	전종렬 충청(기대원)	이정우 충청(기대원)	김동진 충청(기대원)
황영일 교도장(기대원)	한승균 충청(기대원)	김영수 충청(기대원)	김기환 충청(기대원)	원철길 충청(기대원)
이형수 기대원	안동현 충청(기대원)	황의만 충청(기대원)	김구형 충청(기대원)	최옥춘 충청(기대원)
이계원 충청(기대원)	박덕양 충청(기대원)	이태식 충청(기대원)	장태두 충청(기대원)	박우규 충청(기대원)
권영민 충청(기대원)	조종환 충청(기대원)	배준식 충청(기대원)	김영만 충청(기대원)	이인호 충청(기대원)
박성철 충청(기대원)	최희승 충청(기대원)	노영환 충청(기대원)	사복주 충청(기대원)	정경길 충청(기대원)
신상수 충청(기대원)	장철형 충청(기대원)	고재석 충청(기대원)	김영은 충청(기대원)	이달욱 충청(기대원)
장철환 충청(기대원)	김승곤 충청(기대원)	함철주 충청(기대원)	윤석민 충청(기대원)	정기현 충청(기대원)
안수현 충청(기대원)				

■ 부목서

[illegible]

교회 오시는 길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3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4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